

경기아트센터 매달린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4. 08+09 VOL.169

ggac.or.kr

SPECIAL

캐나다 퀘벡 희곡 원작의 연극
〈매달린 집〉

STAGE

2024 <Classic of My Playlist:
계절의 움직임> 프리뷰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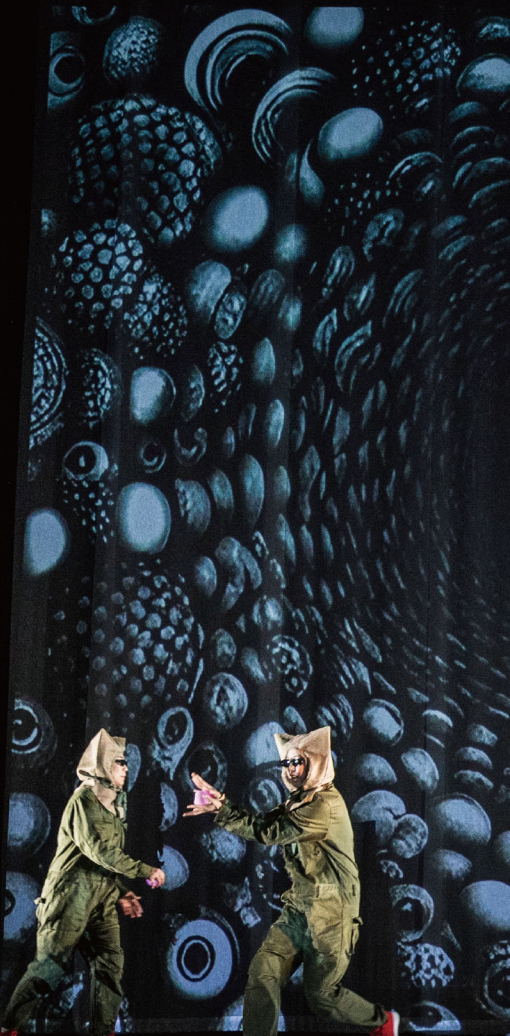
프라하에서 만난 음악

GGAC STORY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모습

합습

춤춤 교차했다가 성글게 흩어지고,
충만하게 몸짓과 표정을 나누다가 홀연히 다른 곳을 바라본다.
활기와 권태, 꿈과 절망,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고통으로 얼룩진 무대 위의 삶.
경기도극단 무대는 삶의 다채로운 에너지를 응축해
하나의 호흡으로 발산해 내는 합*의 결정체다.







SPECIAL

06 View

케백 문화의 깊숙한 울림

연극 〈매달린 집〉 모태인 캐나다 케백 문화의 특징

10 Theme

집은 떠나도 우리는 이곳에 남아

8월 31일막을 올리는

〈매달린 집〉의 다양한 이야기

12 Interview

연극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경기도극단 박주영 상임연출을 만났다.

Interview p.12-15



STAGE

18 Preview 1

경기도무용단

〈토요상설공연 - 경기음악에 춤추다〉

경기음악이 춤으로 빛어준 순간

22 Preview 2

2024 〈Classic of My Playlist:

계절의 움직임〉

클래식 음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24 Preview 3

〈사기꾼 콘서트 시즌 2: 호밀밭의 파수꾼〉

클래식과 클래식의 절묘한 만남

26 Review 1

〈20년의 울림: 미래를 향해〉

새로운 전환의 무대

재단법인 출범 20주년 기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공연

28 Review 2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Ⅲ

〈베토벤 교향곡 9번〉 활회의 하모니

김선옥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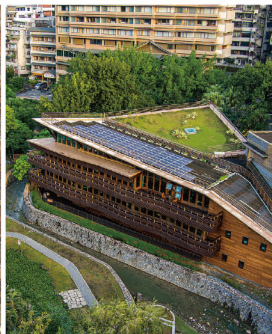
On & Off p48 49

예술과 만남

Attraction p40 45

INSIGHT

- 34 **Art and the City**
프라하에서 만난 음악
매혹적인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클래식 음악의 자취와 숨결을 따라가 본다.
- 40 **Attraction**
사람과 책을 잇는 건축, 도서관의 미학을 읽다
경험과 영감의 공간이 된 세계의 도서관
- 46 **Artist Talk**
아면 매력적인 만남
〈사기꾼 콘서트 시즌 2: 호일발의 파수꾼〉
기획자 이선영 대표작가,
공연 해설자 차무진 소설가와 나눈 이야기
- 48 **On & Off**
아트 컬렉터의 세계
아트 컬렉터 5인의 SNS와
아트 컬렉팅을 위한 신간 네 권



Art and the City p34 39

- 50 **Art Scene**
New Wave of Art
지금, 현대 문화예술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바람

GGAC STORY

- 54 **Zoom In**
무대 뒤 큐뮤니케이터
연극 〈매달린 잠〉의 오키택 조연출은
무대 뒤 숨은 조력자다.
- 56 **GGAC News**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뉴스
- 58 **Calendar**
8월과 9월의 공연 일정
- 60 **Epilogue**
치열한 고독함 뒤의 화열



〈예술과 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격월간 〈예술과 만남〉 2024년 6+9월호
통권 169호 ISSN 2234-5949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준기
편집장 이홍섭
기획·취재 조연주, 김미애
ACE(예술과 만남) 편집회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4
이메일 i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 디자인 아우하(A.u.h)

〈예술과 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SPECIAL

LA MATHS
SOM

SUSP



이번 호 스페셜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리는 연극 〈매달린 집〉(Le Maison Suspendue)이다. 캐나다 가장 소설가이자 최근 20년간 연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몬트리올 극작가로 평가받는 미셸 트랑블레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2022년 경기아트센터에서 '캐나다 희곡의 발견'이라는 테마로 낭독 공연을 선보인 이후 국내 무대에 올리는 첫 공연이다. 본 공연을 앞두고 원작을 번역한 이선형, 〈매달린 집〉 드라마 터그인 전영지, 연출을 맡은 박주영 상임연출이 케백 문화의 특징과 〈매달린 집〉이 품은 심화된 의미 그리고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캐나다 희곡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하고, 공연 안에서 발견하는 가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음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가장 소설가이자 최근 20년간 연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몬트리올 극작가 미셸 트랑블레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 〈매달린 집〉(Le Maison Suspendue)의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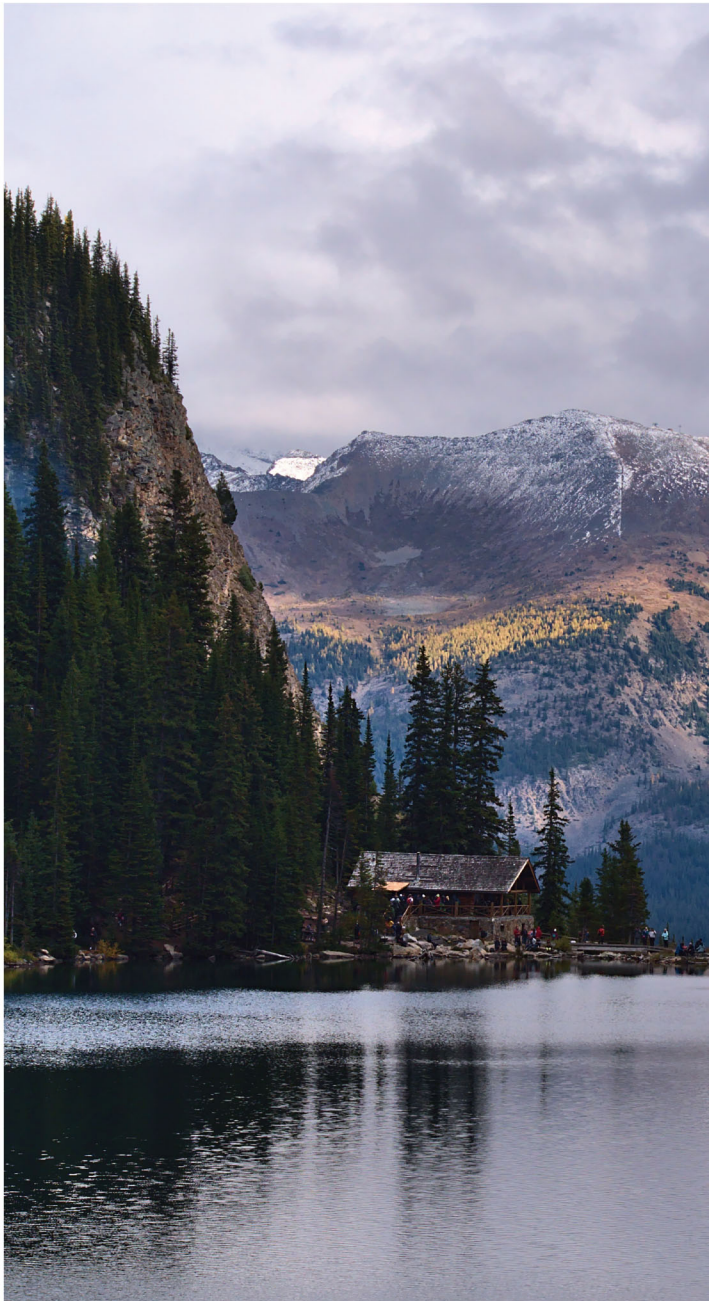
ENDUE

퀘벡 문학의 깊숙한 울림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퀘벡 특유의 독립 문화와 정체성.
이를 그대로 반영한
퀘벡 문학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독창성에서
연극 〈매달린 집〉의 독특한 문체와
극적 구조가 탄생했다.

퀘벡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캐나다 하면 제일 먼저 넓은 국토와 로키산맥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떠오른다. 그리고 여러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떠오른다. 대자연과 다양성이 특징인 캐나다의 10개 주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퀘벡주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으로 역사적 부침을 겪었다.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사용하는 퀘벡은 다른 주에 비해 독특함을 지녔다. 특히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방언 주알^{joual}은 퀘벡의 독립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어로, 퀘벡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과 문화에 관한 정체성을 탐구하는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퀘벡 문학의 특징을 보면, 첫째, 식민지 시절 영국과의 갈등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중요한 배경이 되어 정치적으로 퀘벡주의 분리 운동과 관련한 이슈가 자주 등장한다. 둘째, 불평 등, 경제적 어려움, 노동운동, 산업화 등 현실적 주제가 빈번히 보인다. 퀘벡 작가들은 그들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문제를 탐구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셋째, 여성 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더불어 문학 속 여성 인물에 관한 탐구도 눈에 띈다. 지난 세기 대가축제도를 유지해 온 퀘벡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과거 우리 한국 여성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많다. 퀘벡 문학에서 억눌린 가부장적 환경에서도 억척같이 살아내는 어머니상을 종종 만날 수 있는 이유다. 넷째, 퀘벡 문학은 민속적이고 전통에 뿌리를 두면





서도 한편으로 충만한 실험 정신에 기반한 혁신과 창의성을 추구한다. 기령 연출가 로베르 르 파주(Robert Lepage)는 종합성과 다양성을 접목한 실험 정신으로 그만의 독특한 매체 연극을 창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셸 트랑블레는 누구인가?

미셸 트랑블레(Michel Tremblay)는 전방위 작가로 희곡 뿐 아니라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남긴 퀘벡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1968년 희곡 〈사누이올케들(Les Balles-Souris)〉을 발표해 퀘벡 연극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극작가로 평가받는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몬트리올 노동자의 터전인 르플라토 몽루아얄(Le Plateau Mont-Royal)은 그의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동일 인물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한 작품을 ‘르플라토(Le Plateau)’ 시리즈라고 일컫는다. 이 시리즈에는 르플라토 몽루아얄에 살던 일기천척이 배경 인물로 계속 등장한다. 예컨대 시리즈 속 주요 인물인 에두아르(Edouard), 알베르틴(Albertino), 알베르틴의 딸 테레즈(Thérèse)와 아들 마르셀(Marcel)은 〈매달린 집(Le Maison Suspendue)〉(1990)에서 테레즈를 제외하고 모두 등장한다.

퀘벡 노동자 사회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는 미셸 트랑블레 작품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언어인 주알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언어는 곧 정체성이다. 하층계급의 삶을 탐구하고 그들의 삶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어로 작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트랑블레는 당연한 사회적·정치적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퀘벡의 분리 운동, 여성 인권, 소수자 문제, 사회적 불평등 등은 그의 희곡 속 주된 주제다. 아울러 1965년 퀘벡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으로 촉발된 정체성 탐구는 트랑블레 작품의 단골 메뉴다. 또 그의 희곡에서도 강인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

역사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퀘벡 문학에 의해 독특한
매체 연극이 창조 되었다.



미셸 트람블레. © Laurent Theillet



위. 〈매달린 집〉(1990) 원작.
아래. 미셸 트람블레의
또 다른 희곡 작품
〈사누이들〉(1968).

에 둘러싸여 자란 환경의 영향도 크다. 가령 〈사누이들〉에는 15명의 여성이 등장해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사회적·정치적 불평등과 계층간 갈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 〈매달린 집〉에서 빅투아르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남편이자 오빠에게 온 힘을 다해 저항한다.

〈매달린 집〉은 어떤 작품인가?

르 플리도 시리즈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매달린 집〉을 통해 작가는 당시 퀘벡이 안고 있는 사회적 변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족제도의 변화와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가족, 정체성, 도시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주제는 한국의 1950~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 가족 문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작가로서 완숙한 시기에 쓴 〈매달린 집〉은 일반 서사 구조를 벗어나 1910년부터 1990년까지 40년 간격으로 세 세대를 설정해 한 공간에서 각 세대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화답하며 중첩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세 세대의 시점을 넘나드는 이야기, 독백과 대화의 혼용이 독특한 데다 풍자와 유머가 가득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인물 묘사는 예사롭지 않은 작품의 깊이를 전한다.

1910년 1세대에서 일어난 근친상간의 결과는 가족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또한 보듬고 가야 하는 가족의 유물이다. 1세대 인물 조자파와 빅투아르는 오빠와 동생 사이이면서 동시에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가브리엘은 근친상간을 터부시하는 사회에서 조자파를 아버지 아닌 외삼촌으로 부른다. 1세대의 갈등은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자연과 교감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조자파지만 아이의 미

래와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 도시로의 이주는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빅투아르는 그 외딴 산골에 남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들의 엇갈린 소망은 작품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2세대인 1950년에는 네 인물이 등장한다. 가브리엘의 아내이자 장-미르크의 어머니인 뚱뚱한 여자, 가브리엘의 여동생 알베르틴과 남동생 에두아르, 알베르틴의 아들 마르셀이 그들이다. 이들은 비앙스를 보내기 위해 부모가 살던 호숫가 통나무집에 모인다. 이들 모두는 부모의 유산과 개인적 성향 속에서 각자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누나 알베르틴과 남동생 에두아르 사이에는 어린 시절부터 존재한 갈등이 심각하다. 그들은 부모가 살던 이곳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의 조짐을 보인다.

3세대인 1990년은 가브리엘의 아들 장-마르크와 그와 동생에 관계인 마티유, 마티유의 아들 세바스티앙이 등장한다. 이렇듯 각 세대의 인물은 가족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에 모이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강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느낀다. 당연히 그들은 에너지란 나뭇잎 서로를 볼 수는 없고, 오로지 관객의 눈에만 보인다. 이런 극적 장치는 각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도시 생활을 청산한 장-마르크가 그간 조상의 이야기를 숨겨온 것은 알베르틴처럼 자신의 가족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왔다는 증거지만, 이제 가족사를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억압된 무의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전기를 마련한다. 장-미르크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더는 조상의 이야기를 단절된 과거로 치부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한다. 시간을 초월한 3세대의 동시적 존재는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간 과거와 미래의 메아리가 된다.

〈매달린 집〉이라는 제목은 흥미롭다. 보통 집은 아늑한 곳, 휴식을 취하는 곳, 행복한 곳,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곳을 뜻한다. 그런데 집이 빗줄에 매달린 공중에 떠 있다면 미풍에도 흔들리는 불안한 곳이 된다. 신성한 공간, 가족의 성당으로 표현된 집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매달린 집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심리적 흔들림을 대변한다. 즉 각 세대가 처한 사회적 혼란과 내적 갈등을 은유한다. 이 집의 일주인인 조자파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달이 뜨게 하고, 늑대 소리로 유령과 소통하는 인물이다. 흔들의자처럼 매달린 집은 환상적인 통화 속 세상인 것이다. 우화가 가득한 바구니처럼 매달린 집은 아이에게는 꿈, 과거를 잊고 살던 어른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전하는 장소가 된다. 더불어 매달린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넘어 가족의 역동성과 정체성의 상징으로도 작용한다.

미셸 트람블레의 작품 가운데서도 퀘벡 고유의 가족사와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매달린 집〉

은 주일^{Jeune}(퀘벡 지역 프랑스어)이라는 독특한 문체와 극적 구조로 인간의 내면과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3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난 현대화의 물결을 배경으로 인물의 고난과 갈등을 부각하고 어떻게 그 파고를 헤치고 자기 고유성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과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좌절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각자의 꿈과 욕망이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인물들은 노동자 계층의 한계와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역사적 소용돌이를 헤치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한국 관객은 퀘벡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미셸 트람블레의 문학적 재능과 연극의 독창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선형_〈매달린 집〉 번역자, 현대 프랑스 연극을 전공했으며, 연극평론가이자 연극 치료 전문 수련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캐나다 희곡의 발견: 매달린 집〉 포스터와 무대 위에서 남독 공연 중인 배우들.



집은 떠나도 우리는 이곳에 남아

연극 〈매달린 집〉의 드라마티그드ramahung
전영지는 이 작품에 대해 동시대의
참여한 화두를 연극적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은
보편적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 안에서, 나와 너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재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2024년 7월 18일,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부부
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 물론 법과 제도의 변화는 현실 변화의
결과일 뿐이다. 혈연-결혼 중심의 '이성애' 규범적
정상 가족의 외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의
존과 돌봄을 실천해 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있
었다. 한부모 가족, 성소수자 가족, 비혼 가족 등
수많은 형태의 '비정상 가족'이 기존 가족 모델의
'정상성'을 질문하며 '가족'을 변혁해 온 것이다.
'정상 가족'은 기실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 시스템
을 저렴하게 유지하고 복지와 돌봄을 대리 수행
하는 장치로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확대와 폭력
을 자행하고 으레한 관계이자 공간이었다는 점

을 일깨우면서, 비정상 가족은 가족 실천이란 어
떠 해야 하는지를 환기해 왔다. 그 때문에 우리
가 생각하는 가족은 여전히 꽤, 자주 실망스럽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지기를
희망해 볼 수 있는 이름이 되어왔는지도 모른다.
미셸 트랑블레의 〈매달린 집〉(1990)은 이러한
변화를 일찍이 재촉했던 목소리다. 주로 자전적
글쓰기를 실천해 온 캐나다 퀘벡 출신의 극작
가이자 소설가인 트랑블레는 또다시 자신의 어
린 시절을 함께한 마을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
는 가상의 인물들-을 무대 위로 호명했다. 1910
년대의 빅투아르·조자파 남매와 아이 가브리엘,
1950년대의 알베르틴·에두아르 남매와 그들의
올케이자 형수인 똥똥한 여자 그리고 아이 마르



셀, 1990년대의 장-마르크·마티유 커플과 아이 세바스티앙이 그들이다. 1910년대 가족은 근친 상간이기 때문에, 1990년대 가족은 동성 커플 이라서, 그리고 1950년대 가족은 그 사이에 낀 세대로서 율케·형수와 의붓남매라는 조합이라서 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아이를 함께 양육하기 어려울뿐더러 또 다른 아이를 기대할 수 없다. 아이는 오래도록 '미래'를 표상해 온바, 이들은 자신들이 목도한 '미래 없음'에 절망한다.

하나 과거에는 미래가 있었으니 과거가 될 수 있었을 터, 세 세대를 동시에 보고 있는 관객은 알 수 있다. 이 모든 과거에 미래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이들의 가족이 혈연과 결혼으로 외연이 확

정되며 가족 구성을 다시 쓰리라는 것을, 그리고 땅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해 불안하게 흔들리는 '매달린 집' 없이도 이들은 서로의 삶과 역사를 가까이 돌보는 관계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더 나아가 여러 세대의 동시적 진행을 통해 트랑블레는 이들의 이야기가 선행적이고 단선적으로 상상되는 이성애의 규범적 시간 안에 담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2022)의 저자 김순남이 영국 사회학자 토머스 켄플(Thomas Kemplo)의 '쿼어 시간(queer time)'이라는 개념을 경유해 설명하듯, 삶이란 매끄럽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생의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기존 가족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가족 실천을 상상하고 모색하는 것

이 불가능할 터. 트랑블레는 이러한 통찰을 희곡의 구조에 담는다.

〈매달린 집〉은 이처럼 첨예하게 동시대적인 화두를 연극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은 보편적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족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순남의 문장을 다시 빌리자면, "가족을 정치화한다는 것은 나로서 살고, 나로서 연대하고, 나로서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인 것이다. 경기도극단 박주영 상임연출이 윤색한 대본의 대사처럼, "이게 나"이고 "그게 다"이지만, 내가 나로서 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회구하는 것. 이것이 〈매달린 집〉이 품은 마음이다.

연극 〈매달린 집〉은 극단 가치를 이끌어온 박주영 연출가가 경기도극단 상임연출로서 올리는 첫 작품으로, "친밀한 삶의 기지"[김희경의 〈이상한 정상가족〉] 중로서 가족을 무대 위에 짓고 허문다. 무대를 물들이던 석양에 대한 기억과 함께 이 기지에 대한 꿈과 비람과 절망과 간절함을 남긴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 이야기를 이어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터다.

글 전영지, 드라마터그, 공연 칼럼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극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다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어떤 마음이 남을지를 고민하며 공연 전후를 살핀다.



2022년 〈매달린 집〉 남동 공연.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을 담았다.



- 일시 2024년 8월 31일~2024년 9월 8일
-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금액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만원의행복석 1만 원
- 문의 031-230-3302-4
- 예매 1544-2344

SPECIAL INTERVIEW

A NARRATI

연극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눈을 마주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대화하고
공감하는 연습 현장. 경기도극단의
박주영 상임연출은 그 현장에서 나오는
기본 좋은 에너지를 관객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곧 세상과 소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막 3주 차에 접어든 대본 리딩 현장. 8명의 배우가 책상 위에 대본을 펼쳐놓고 낭독을 시작한다. 그저 책 한 권 읽어내는 나직함이 아니다. 지난 2주간 이어진 리딩 연습이기에 목소리만으로 캐릭터는 점차 선명해지고 감정이너올거린다. 그렇게 대본 한쪽 구석의 대사 한 줄 한 줄이 모여, 이제 곧 의자에서 일어서 동선을 익히고 액팅을 더하며 무대에 올릴 준비가 끝날 것이다. 리딩하는 모습을 잠시 엿봤을 뿐임에도 공연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광경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공연될 연극 〈매달린 집〉 연습 현장이다. 배우들의 대사가 넓은 연습실 안을 울리며 긴장감을 더할 때, 기민하게 배우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감정의 높낮이를 조율하며 차분히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이가 있다. 박주영 경기아트센터 상임연출이다.

올해 3월 경기아트센터에 몸담게 된 이후 〈매달린 집〉이 상임연출로서 올리는 첫 공연이다. 5월에 공연한 김광보 예술감독의 〈단명소녀 투창기〉에 연출부로 참여하면서 경기도극단 단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경기도극단 배우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맡은 배역을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매달린 집〉 공연 준비를 시작할 땐 낯선 곳에서 하는 첫 작업이라 부담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작자들과 만나 연습하며 공연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연극이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

LIVE OF ART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특히 경기도극단 단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동안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작품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눈을 마주하며 만드는 예술이거든요.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경기도극단만이 지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부담감이 많이 가셨지만, 새로운 관객을 만나는 데 실패와 함께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기본 좋은 딸림이랄까요. 어떤 공연이든 느끼는 것이라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상임연출에게선 명료해 보이지만 차갑지 않고, 무게를 잡거나 잔재하지 않으며, 침착하고도 조용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깊이 사유하는 얼굴로 배우들의 표정과 대사를 관조하다가 리딩이 끝난 후 명확하고도 사려 깊은 톤으로 연출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그런 오라가 풍겼다. 그녀는 본래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배우로서 연극 현장에 발을 디뎠다. 그러던 중 ‘배우가 하고 싶은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글을 쓰고 제작을 하기 시작했다. “연극은 가장 솔직한 예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잠시 스치는 한때의 감정이나 인생의 한 장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뇌와 삶의 순간을 집요하게 고집어내거든요. 그걸 다시 경험하려 한다는 점이 연극의 안쓰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면도 아닐까요. 제가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연기가 아닌 연출가의 길에 들어서 지 10여 년, 무대에 올린 여러 편의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자씨의 시발택시〉다. 직접 쓴 첫 희곡이기도 하다. 30년간 한 집안의 가정으로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살아온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 자신의 외할머니를 모델로 살아 처음 만든 이야기가 관객을 만나고 박수를 받은, 잊을 수 없는 작품으로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박주영 상임연출은 매년 작업할 때마다 그때의 실패와 강한 의지를 떠올리며 작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2023년, 〈고쳐서 나가는 곳〉이라는 작품



으로 제60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부산 연도에 실제로 존재했던 ‘깡깡이아재매리’ 불리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역시 그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이다. “창작자들과 함께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이었죠. 수상하고 난 후 큰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저 우리끼리 재밌고 즐거워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가끔 서러운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잘 보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해보라!’라는 응원으로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연극으로 전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

〈매달린 집〉은 40년에 걸친 3대에 걸친 세 가족의 삶을 그리고 있다. 박주영 상임연출은 섬세하고도 묵직한 캐나다 작가 미셸 트람블레의 원작과 이선형 번역자의 번역본을 두고 전영지 드라미터그와 함께 오랜 시간 대본 윤색 과정을 거쳤다. 세대가 다른 세 가족이 어떻게 달았고 또 다른지 대사와 지시문에 담으려 노력을 거듭하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인물 간 관계와 각 세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세대를 명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연습에 들어가고 배우들이 캐릭터에 동화되면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경기도극단 단원들이 등장인물을 선명하게 세우면서 각각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무대나 조명, 의상, 분장 등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더 확실하게 이들의 시대를 보여주려 합니다. 한편으로 어느 순간에는 세대 구분이 필요치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무대 위 세 세대가 동시에 모두 등장해 서로 보고 듣는 장면이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주영 상임연출은 무대 위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망과 결핍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였다. 연극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매달린 집〉

을 준비하며 박주영 삼임연출에게 가장 고되게 느껴지는 숙제 역시 국가도, 시대도 다른 인물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가장 없이 그대로 무대에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되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이기도 하다. 처음 만나는 인물들의 삶을 무대 위에서 만드는 과정. "이 작품은 가족 이야기예요. 관객이 무대에 오른 극을 보면서 가족을 생각하고, 그 인의 자신을 생각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짜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 인간 박주영으로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질에 있었어요. 마침 이런 시기에 만난 <매달린 집>은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흔들리는 저를 풀어주기도 한 작품이에요."

케백의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집이라는 배경 또한 극의 서사와 인물 간 갈등을 아끼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다. 박주영 삼임연출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로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라는

**"앞으로도 계속 연극으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상을 만나고 싶어요.
연극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존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각하게 하는 점이 작품 속 케백이라는 지역이 지닌 특징이라고 말했다. "동양의 자연과는 다르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공포스럽기도 한 것. 그게 이 작품 속 자연이 주는 느낌이거든요. 극 중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 가득 수놓은 수많은 별빛, 두 눈 가득 담기에도 벅찬 보랏빛 석양, 호수와 산 숲...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감각을 깨우죠. 이런 요소가 등장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해 끊임없이 길고 깊은 고민과 통찰을 멈추지 않는 박주영 삼임연출에게 '연극을 한다

는 것의 매력'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저는 글을 쓰는 연출가인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곤 해요. 그 이야기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죠.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고루해지거나 내 안에 스스로 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새로운 시각과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극으로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전 사실 말하고 싶어서 연극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연습실에서 창작자들과 대화하는 게 좋아요. 어찌 보면 연극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 편 한 편 연극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이는 박주영 삼임연출은 또 한 번 관객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정성 들여 완성한 무대 위에 스민 그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공감하는 시간,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모두의 이야기가 서려 있을 것이므로.

글 이정주 사진 박우진



예술감독
김광보

작가
미셸 트랑블레
(Michel Tremblay)

번역
이선형

연출
박주영

드라마터그
전영지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최보윤

의상디자인
이윤진

소품 분장디자인
장경숙

사운드디자인
임태형

음악
베일리 홀

음직임
이경은

조연출
오기택

출연
임미정
윤재웅
김지희
이슬비
노민혁
권승록
김희윤
김현진

캐나다 희곡의 발견

매달린 집

LA MAISON SUSPENDUE

2024.
8.31-9.8

평일(화~금) 19:30
주말(토~일)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2344

단체·공연문의 경기도극단 031-230-3302-4

중학생(14세) 이상 관람가 2010년 포함 이전 출생자 러닝타임 100분 내외 인터미션 없음

GGK 경기도극단
GYEONGGIDO THEATRE COMPANY

Canada

S

Preview 1

경기도무용단
〈토요상설공연-경기음악에 춤추다〉
경기음악이 춤으로 빛어진 순간

A

Preview 3

〈사기^{***} 콘서트 시즌 2: 호밀밭의 파수꾼〉
클래식과 클래식의 절묘한 만남

G

Review 1

〈20년의 용광: 미래를 향해〉
시토문 전향의 무대

T

Preview 2

2024 〈Classic of My Playlist:
계절의 움직임〉
클래식 음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E

Review 2

경기말하모닉마스터즈 시리즈Ⅲ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하모니



궁중무용 중 향악정재에 해당하는 무고.
복을 두드려며 주는 춤으로 풍요한 기상을 표현한다.



경기도무용단
〈토요상설공연-경기음악에 춤추다〉

경기음악이 춤으로 빛어진 순간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토요상설공연〉의
네 번째 공연이 또 한 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경기음악에 춤추다'.
우리 춤의 진정한 매력이
경기음악 가락 위에 너울댄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공연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선보이는 〈토요상설공연〉이 지닌 의미는 '문화유산을 춤추다'라는 전체 테마에 잘 드러나 있다. 문화유산의 연행을 통해 경기도무용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 무용단으로서 갖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 경기도무용단과 함께 경기시나위춤보존회, 광명농악보존회, 정금리춤전승보존회, 한국십이체장고춤보존회 등 4개 지역 예술 단체와 연계해 경기무용네트워크를 조성, 우리 춤이 지닌 다채로운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토요상설공연〉은 경기도무용단이 구성하고 표현하는 한국적 미의식과 정의적 안무가 특징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각 세대와 다양한 취향에 따라 레퍼토리를 다각화한 다섯 번의 공연 모두 관객과의 공감

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시키며 매번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조우한 우리 춤의 예술성

다위가 한풀 꺾인 8월 넷째 주 주말인 8월 24일 막을 올리는 〈토요상설공연〉은 지난 6월 공연에 이어 '경기음악에 춤추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전통 춤과 근대 춤을 각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우리 춤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기획한 이번 8월 공연은 12부에 걸쳐 다섯 가지 춤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춤은 '무고(舞古)'와 '가인전목단(佳人戀牧丹)'의 합설(合設)이다. 합설이란 궁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할 때 사용하던 용어. 궁중무용 중에서 향악적 재에 해당하는 이 두 춤은 나라의 크고 작은 잔치에서 연행되었다. 무고는 북을 두드리며 추는 춤으로 웅혼한 기상을 표현하여, 가인전목단은

화병 안 모란꽃을 어르고 또 꺾으며 노는 풍류를 일컫는다. 두 번째 '진쇠춤'은 진쇠 가락을 포함한 경기도 도당곳의 다양한 가락에 맞춰 남성이 팽과리를 들고 추는 춤이다. 나라의 경사날 만 조백관이 보는 가운데 원님을 춤추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양반의 위엄과 백성을 대하는 어진 영향력이 흥겨운 가락을 타고 표현된다. 세 번째 춤 '검기무^{劍氣舞}'는 칼을 들고 추는 궁중무용으로 검무^{健舞}라고도 한다. 신라 시대 관창의 낮을 기리기 위해 그를 닮은 가면을 쓰고 춤춘 것에서 유래했다. 조선 중기 이후 궁중무용으로 채택되면서 길이 짧아지고, 그에 따라 전투적 위용보다는 우아하고 유연한, 상징성을 지닌 여성 춤으로 변모했다. 경기사나위오편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경기사나위'는 북·장구·팽과리·징 같은 타악기와 피리·젓대·해금 같은 선율악기로 편성되는 연주곡이다. 주로 도드리 계통의 도살풀이장단과 살풀이장단으로 경기민요 가락과 유사하다. 독주와 합주를 번갈아가며 연주하는 경

기사나위는 대체로 7~8분 길이의 짧은 곡이지만, 무주 의식 진행에 따라 연주 시간이 유동적이라 연주자들이 즉흥적인 가락으로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2부를 장식하는 창작 공연 '함'은 젊은 인물이 예담 상임단원의 개성과 창의적 세계를 담은 안무 작품이다. 경기검무를 모티브로 검무의 개념과 에너지의 치열함 속 허무와 낭만의 이합적 내용을 담아낸다. 검무는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원초적 기능부터 '결단', '의협', '대결' 등의 개념이 담긴 경기무용 중 하나로 음과 양, 여성성과 남성성,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정적과 동적 등이 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로 귀결되어 자연스러운 삶의 합을 전한다.

전통 춤과 가락이 흐르는 한국 역사 속 풍류, 그 특별한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어내는 이번 공연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오감으로 감상할 수 있는 뜻깊고도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글 편집부



- 일시 2024년 8월 24일(토), 10월 26일(토) 오후 4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금액 R석 2만 5천 원, S석 1만 5천 원
- 문의 031-230-3312
- 예매 1544-2344





2



3



4



김정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시화를 맡은
이소영 경기도무용단 상임단원



이번 공연에서 창작 안무 작품을 선보이는
이예울 경기도무용단 상임단원

- 1 진쇠춤, 경기도 도당굿의 다양한 가락에 맞춰
평과리를 들고 추는 남성 춤이다.
2 칼을 들고 추는 궁중무용인 검거무.
3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이전 공연 장면.
4 이예울 상임단원의 이전 공연 출연 작품.

2024 <Classic of My Playlist: 계절의 움직임>

클래식 음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8월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쉽고 친숙한 클래식 음악 이야기가 찾아온다. 당신만의 새로운,
첫 클래식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은 정도로
신선한 '고전(classic)'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장르의 음악에 처음 입문하면 어떤 곡부터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마련이다. 근사한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선 그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들어보며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아트센터가 이를 위한 유쾌한 조력자로 나선다. 클래식 입문자가 첫 플레이리스트에 올리면 좋을 장르별 대표곡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공연을 준비한 것. 바로 8월 17일, 주말 오후 단 한 차례 열리는 <Classic of My



Playlist: 계절의 움직임)이다.

《Classic of My Playlist: 계절의 움직임》은 경기아트센터만의 2024년 시그니처 브랜드 시리즈다. 시그니처 공연답게 관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티스트와 소재를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부터 국악, 대중음악 등을 이야기와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의 음악과 해설을 들으며 음악과 연계된 다채로운 예술 이야기가 이어진다. 공연 시간대도 주말 오후로 고정해 평일

관람이 어려운 관객도 여유롭게 즐기길 좋다. 음악만이 아닌 나라 가족 단위 관객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새로운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며 고전과 예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즌 주제는 '계절의 움직임'으로, 클래식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무겁고 습한 한여름 날씨와 변화하는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곡은 대중에게 익숙한 비발디의 〈사계〉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세계적인 양



클래지움무지쿰 서울 단원들. © Brantist



- 일시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4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금액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문의 031-230-3270
- 예매 1544-2344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 Jino Park

상블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인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독보적인 솔리스트 김영욱, 그리고 국내 최고의 원전* 음악단체 '클래지움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펼쳐진다. 클래지움무지쿰 서울은 김선아 음악감독과 백승록 악장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세계적인 비로크 연주자들과 함께 수확한 최고 수준의 고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되는 음악가와 연주단이 펼치는 현악과 관악의 더블 사이클과 함께 해설도 곁들여진다. 작품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해 줄 콘서트 가이드로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뮤직 테라피스트 나용준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 공연을 통해 제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를 관객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듣고 느끼고 수용하면서 애호가와 입문자가 각기 다른 시선과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다채롭고 풍부한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공연이 될 테니 기대해도 좋다. 이번 공연을 위해 만원의 행복권, 65세 이상 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문화누리 할인(50%), 예술인패스와 청년패스, 다자녀 및 임신부 할인(30%), 경기도 카카오톡 친구 할인(20%)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클 편집부

〈서가^{書歌} 콘서트 시즌 2: 호밀밭의 파수꾼〉

클래식과 클래식의 절묘한 만남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과 클래식 음악.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소설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도 좋아한다. 8월 2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이 둘의 어울림을 보고 듣는 순간, 색다른 감동과

깊은 여운으로 물든 마음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위선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라보는 상처받은 청소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명작으로 호평받는 J. 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장면이나 비속어가 많아 1951년 출간 당시 논란이 되었지만, 주인공 홀든 콜필드처럼 위선적인 기존 사회에 저항하고 본연의 순수성을 찾고자 성장통을 겪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콜필드 신드롬'이 일어 당대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20세기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고전소설이 클래식 음악과 만난다. 경기아트센터에서 기획하는 〈서가^{書歌} 콘서트〉를 통해서다.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고전소설 한 편을 선정해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 작가의 이야기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북 콘서트 형식으로, 이번 공연이 두 번째 시즌 작품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 문학작품과 클래식 음악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어떤, 클래식〉의 저자인 소설가 차무진이 사회를 맡은 이번 〈서가^{書歌} 콘서트〉는 〈호밀밭의 파수꾼〉 이야기와 함께 소설 내용 및 시대상과 연관된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슈만, 비호프, 차이콥스키 등의 클래식 음악과 존 레논, 사이먼 앤 가펍클 등의 노래, 〈오즈의 마법사〉 OST "Over the Rainbow" 등 명곡까지 재해석해 다채롭게 구성했다. 고전소설과 이 음악들은 모두 시대를 넘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다는 공통분모를 지녔다. 그 안에 숨은 연관성과 비밀이 책 이야기와



클래식과 문학의 만남을 추구한 소설가.



음악으로 하나하나 펼쳐질 예정이다. 바이올린·첼로·피아노 연주와 테너의 성악이 흐르고, 그 사이사이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사회자가 들려준다. 바이올린은 연주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균, 첼로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이자 바리에이션 첼로 앙상블 대표인 오승규, 피아노는 엘렉톤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백순제가 맡았다. 여기에 유수의 오페라 단과 함께 여러 오페라에 출연하고 있는 테너 위정민이 합세해 고전소설과 클래식 음악의 매력적인 하모니를 선사한다. 오랜 세월 수많은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고전소설의 여운을 되새길 뿐 아니라 아직 소설을 읽지 않은 예비 독자도 작품과 공연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눈으로 읽는 고전과 귀로 듣는 고전의 이 특별한 조우가 얼마나 깊은 사색을 이끌어낼지, 또 어떤 특별한 감동을 빚어낼지 오롯이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 편집부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금액 R석 3만 원, S석 2만 5천 원
- 문의 031-230-3267
- 예매 1544-2344



김성민 바이올린



김성민 노래



김성민 피아노



김성민 더블베이스

〈20년의 울림: 미래를 향해〉 새로운 전환의 무대

지난 6월 28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미래를 향한
또 다른 힘찬 도약을 담은 무대가 펼쳐졌다.
과거와 현재처럼 미래에도
찬란한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확인하고,
진화하는 한국 음악의 모습을 제시한
유의미한 공연이었다.

경기아트센터 재단법인 출범 20주년 기념으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린 〈20년의
울림: 미래를 향해〉 공연. 우리 고유의 정서로 창
작한 전통음악을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 장르와
융합하는 창의적 시도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
라가 품격이 느껴지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의 포문을 연 국악관현악을 위한 '길'은
이준호 경기도립국악단 초대예술감독이 작곡한
소금 협주곡을 홍민용 작곡가가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소금에 집중되어 있던 선율이 각 악기의
특색에 맞게 변화되며 새롭게 조합된 연주곡이
다. 대금 협주곡 '풀꽃' 협연은 대금 명인 김정승
의 탁월한 해석력과 연주 기량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연주였다. 김대성 작곡가가 처음으로 아
프리카의 리듬을 사용해 우리 음악과의 만남을

표현한 협주곡으로,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의지
가 풀꽃 같은 질긴 생명력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를 담아냈다. 제주민요 '용천강', '너영나영', '서우
제소리'는 제주 역사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민요
를 편곡한 것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꽃 거울초(유
채꽃)의 꽃말처럼 희망과 기쁨, 쾌활한 제주민요
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그곳에 평안함이 깃들
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크로스오버 거장 양방언이 자신의 대
표곡으로 재편곡한 피아노 협연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공식 주제곡이자
양방언의 대표곡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프론
티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국악관현악버
전으로 구성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살렸다.
2023년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손다혜 작곡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울림' 연주 모습.

가야의 '이화 도화 민발하'는 깊은 힘을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다. 경기민요 '한강수타령'의 선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 위촉 초연곡이다. 가야금의 잔잔한 음색으로 시작한 연주는 옛모리장단과 변형 장단의 다양한 패턴을 통해 점차 클라이맥스로 이어졌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표출되는 힘찬 에너지가 심장을 울리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암시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울림'은 2024년 5월 위촉 초연곡으로, 3개 악장으로 구성된 연주를 통해 타악기의 강력한 진동이 한 공간 안의 모든 관객에게 공명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무대를 통해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가 우리음악으로 그려나갈 역동적인 변화와 도전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글 편집부



국악관현악을 위한 곡 '갈' 연주를 마친 모습.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시리즈Ⅲ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하모니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삼일지휘자인
김선옥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호흡하며 빛어낸 베토벤 교향곡 9번.
섬세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지휘 아래
이뤄진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의
웅장한 선율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 무대였다.

독일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환희의 송가'를 바탕으로 작곡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이 통일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함께 연주된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잊히지 않고 있다. 이 곡이 작곡된 1824년 당시 유럽은 계급이 존재했던 탓에 일반 사람들에게 '자유'는 평범하게 거론되는 단어가 아니었다. 특히 정치와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던 베토벤에게 자유, 평등, 박애 등의 사상과 주제는 숙명적으로 그의 음악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을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할 곡으로 선택한 김선옥 예술감독에게도 이 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한국에서 처음 교향악단을 이끌게 된 지금, 피아니스트로서 쌓아온 세계적 명성을 지휘로 이어가야 할 중요한 기점에서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형식에 맞춰 기악으로만 구성된 세 악장과 사중창, 합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악장에서는 지휘자로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음악적 테크닉을 이 한 곡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 많은 지휘자가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을 같이 노래하며 지휘하는 모습을 종종 해외 유명 교향악단의 연주 실황에서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 숲섬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무대에 신경기필하모닉과 김선록 예술감독.



이번 경기필하모닉과 함께한 연주에서도 그와 같은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만큼 관현악적 완성도와 선율이 지닌 의미는 베토벤 음악 어법의 절정을 보여준다. 정제된 고전주의 형식과 자유로운 낭만주의 음악의 경계에 있는 베토벤의 음악은 이 시기의 그를 이해하기 위해 음악가들이 빈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이전 교향곡과 달라진 악기 편성과 합창을 통해 전달

되는 가사의 섬세한 표현은 종종 지휘자에게 음악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한다. 시기적으로 아직은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이 음악적으로 충분히 교감한 것은 아닌 만큼 호흡이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하지만 세계 무대를 누비는 정상급 지휘자들이 몇 번의 연습만으로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는 것을 보면, 국내 청중도 그러한 음악적 감동을 공유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쁨과 화합의 선율

호른은 교향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다. 실제로 베토벤의 교향곡 9개 중에서 트롬본이 사용되는 교향곡은 3곡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호른의 역할은 금관 파트에서 절대적이다. 각 선율을 담당하는 목관악기와 연결하기 위해, 때로는 화성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베토벤은 훌륭한 관현악 작곡가로서의 기량을 곳곳에 발휘해 놓았다. 연주 내내 피아니스트 출신의 지



1 마치 노래하듯 섬세한 지휘에 따라
관현악 연주와 합창의
훌륭한 합을 보여준 무대였다.
2 연주를 끝낸 후 관객들이 보내는
갈채에 화답하는 김선욱 예술감독.

취자가 관악기 파트와 호흡하면서 음악적 감성을 단원들에게 정교하게 전달하려는 모습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음악적으로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더욱이 각 악기의 연주가 시작될 때마다 섬세하게 사인을 주면서 다이나믹함을 끌어내려는 모습은 관객의 관점에서 볼 때 지휘자의 악곡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보였다. 악곡 진행 중 부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앞에서 언급한 호른을 비롯한 금관악기가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등장하는데, 이때 음량과 음정의 정교함 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 예술감독의 색깔이 경기필하모닉에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다.

스케르초풍의 2악장,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칸타빌레 선율이 주를 이루는 3악장에서 보여준 음악적 표현과 감성은 많은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부분적으로 재현된 4악장 '합창교향곡'의 기악적 부분을 마치 노래하듯이 표현한 지휘자의 제스처와 베토벤 특유의 동기 발전 방식(motivic development)을 악기 간 균형 있게 연결하는 모습은 작품 해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에도 충분했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은 'Sturm und Drang^{Storm and Strass}' 같은 극적 표현이 군데군데 녹아 있는 음악적 정서가 관현악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김선욱 예술감독에 의해
기쁨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사와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듯한 합창 선율의
극적 효과가 연출되었다.

이번 연주를 통해 이러한 점이 베토벤의 음악적 특징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환희의 송가'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4악장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관현악과 합창의 극적 전환과 폭발적 음량에 압도되는 부분을 기대하게 된다. 이에 부응하듯 지휘자는 음악적 해석과 감성 표현을 열정적으로 했다고 느껴졌다. 특히 '합창교향곡' 4악장에 나오는 성악의 선율은 상당히 기악적인데, 이는 초연 당시 많은 성악가가 베토벤에게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기존의 틀을 깬 양식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점은 '합창교향곡'의 특색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솔로의 유려한 멜리소^{Melissa} 선율과 기계적으로 교차하는 합창 선율, 정확한 음정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남게 된 베토벤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중창과



솔로의 엘리스마 부분은 마치 악기가 연주하듯 정확한 음정의 연결을 요구하는데,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노래를 통해 그 감동을 이어가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지휘자와 독창자들 간 호흡이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합창교향곡’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이 곡의 4악장은 음악에 조제가 깊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는 선율이 곳곳에서 나온다. 음악적으로도 이전 악장에서 나왔던 주제적 선율들이 4악장 곳곳에서 재현되면서 마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쾌감을 선사한다.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라면 분명 이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짜놓은 구성이었을 것이다. 기쁨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사와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듯한 합창 선율의 극적인 효과가 무대 위 대규모 단원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의 손에 의해 뚜렷하게 연출되어 공연이 끝난 후에도 진한 감동으로 남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다른 교향악단에서도 여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한 김선옥 예술감독은 이 작품이 지닌 힘과 메시지를 빌려 재단법인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러 번 공연했던 작품이다. 보통 연말에 만나게 되지만, 6월에 들는 ‘합창교향곡’은 신선했다. 또 피아니스트로 널리 알려진 김선옥을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선택한 경기아트센터의 결정이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관객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지휘자로서 국내 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경기필하모닉만의 세계적 사운드를 다른 지휘자와 차별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장개업한 가게의 오픈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치가 꾸준히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필하모닉이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기 위한 선택을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다른 교향악단들이 외국 지휘자를 영입해 전향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필하모닉의 이번 선택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김선옥 예술감독의 색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경기필하모닉 단원과 지휘자 모두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고안하고 발전시켜 음악 애호가들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글 서순정, 작곡가 서순정은 맨해튼 음악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들며 모든 장르의 음악적 교감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문화적 덕후를 탐구해나가고 있다.



이 무대에 독창자로 참가한 성악가들.
왼쪽부터 비리튼 양준모, 테너 손지훈,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소프라노 황수미.

Art and the City
프라하에서 만난 음악
매혹적인 남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클래식 음악의 자취와 숨결을 따라가 본다.

Attraction
사람과 책을 잇는 건축,
도시란의 미학을 읽다
강점과 약점의 공인이 된
세계의 도서관

Artist Talk
여천미술재단의 만남
〈사자〉를 쓴 시몬느 호밀의 파수관
기획자 이산영 작가,
공연 해설자 문근소와 가와 나눈 이야기

On & Off
아트 컬렉터의 세계
아트 컬렉터 5인의 SNS와
아트 컬렉팅을 위한 시간 네 권

Art Scene
New Wave of Art
지금, 현대 문화예술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바람

프라하에서 만남 음악

매혹적인 낭만의 도시 프라하엔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른다.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이 가쳐간 이 도시에선

올해 봄에도 유럽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인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열렸다.

음악가들의 자취와 숨결이 스며 있는 프라하는

‘음악’ 하나만으로도 탐험하고 감상하며 찬미할 이유가 충분하다.



블타비(몰다우강)변에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며 영화나 드라마,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다. 아직도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이 아름다운 도시는 9세기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보헤미아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였으며, 서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도시이기도 하다. 그 배경에는 체코의 독특한 역사와 프라하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헝통과 언어는 슬라브 계통이지만, 오랫동안 신성로마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로서 독일어 문화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탓에 잦은 침략을 당하면서 다양한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풍요로운 예술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바로크 시대에 확립된 프라하의 뛰어난 음악 교육 시스템은 꾸준히 탁월한 음악가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이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면

서 프라하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프라하 사람들의 음악 사랑은 이 작은 도시를 유럽의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음악 중심지로 만들었다.

비셰흐라트 Vyšehrad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블타비강 동쪽 기슭에는 비셰흐라트 언덕과 성채가 있다. 지금은 공원과 묘지로 쓰이는 이곳은 원래 중세 시대에 세워진 요새였다. 한때 보헤미아 군주들의 거주지이기도 했고 후스전쟁 때는 이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30년전쟁 후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오스트리아군의 주둔지가 되는 등 역사적 부침을 겪었다. 또한 이곳 묘지에는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와 안토닌 드보르자크, 바이올리니스트 프란티셰크 온드르지체크와 안 쿠벨리크, 지휘자 라파엘 쿠벨리크와 카



블타비강과 구시가지가 바라다보이는 프라하 도시 전경.



렐 안체를, 소프라노 에미 데스틴 등 전설적인 음악가들이 잠들어 있다. '비셰흐라트'는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첫 곡이기도 하다. 음악은 전설적인 음유시인 루미르를 상징하는 하프 소리로 시작되며, 찬란한 영광에서 패하에 이르는 비셰흐라트의 오랜 역사를 음악으로 펼쳐낸다. 음악은 패허 위를 떠도는 하프 선율과 유유히 흐르는 블타비강을 묘사하며 조용히 끝난다.

보헤미아 음악의 여명

보헤미아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 음악도 보헤미아에 전파되었는데, 체코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 라틴어-체코어 교회 음악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후기로 접어들면 프라하 곳곳에서 로마 전례와 슬라브 전례 등 다양한 교회음악이 연주되었고, 음유시인들의 노래도 꽃을 피웠다. 블타비강을 굽어보는 프라하성에 있는 성 비투스 대성당과 구시가에 자리한 베들레헴 경당은 종교 건축물이지만 보헤미아 음악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러 황제와 보헤미아 군주의 무덤이 있는 성 비투스 대성당을 처음 지은 사람은 바츨라프 1세로(현재 대성당은 14세기 지은 세 번째 건물이다), 그는 체코의 수호성인이다.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찬가이자 제2의 국가로 꼽히는 '성 바츨라프 찬가' [Svatováclavský Chrást]는 이 성인에게 바치는 노래다. 지금도 성 비투스 대성당의 저녁 미사에 참석하면 이 찬가를 들을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요세프 수크와 비테슬라프 노비크, 파벨 हु시 등이 이 선율을 인용한 곡을 썼다. 한편 1391년에 세워진 베들레헴 경당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앞서 교회 개혁을 주창한 안 후스가 활동했던 곳으로, 후스는 이곳에서 설교하고 찬가를 부르며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했다.



1 에스타테스 극장 내부. 모차르트가 자신의 오페라를 지휘했던, 유일하게 현존하는 오페라극장으로 18세기 극장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2 비셰흐라트에 있는 전설적인 음유시인 루미르의 석상. 3 블타비강 동쪽 기슭에 있는 비셰흐라트 언덕과 성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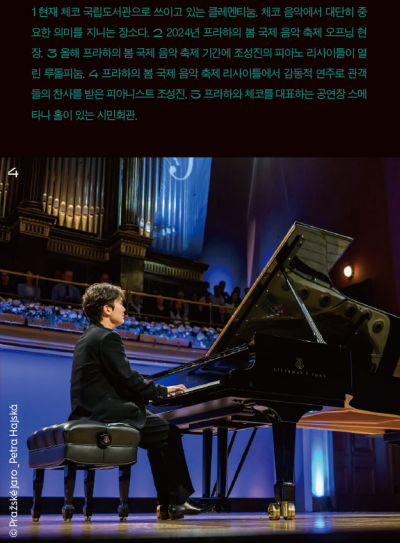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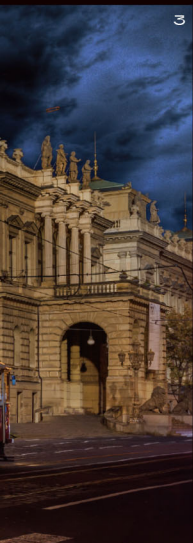
클레멘티눔 Klementinum

프라하는 예부터 중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도시였다. 1348년에 중부 유럽 최초로 대학이 설립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음악이었던 플랑드르 대가들의 폴리포니 음악을 가르쳤다. 30년전쟁이 끝나고 보헤미아를 다시 가톨릭교회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교회음악과 음악





2



© Práskajano, Peter Hajek

1 현재 체코 국립극장(Národní divadlo)은 1840년대부터 제기된, 독일어가 아닌 체코어로 공연하는 극장에 대한 열망의 결과물로 19세기 체코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1881년 극장이 완공된 후 개막 공연에서는 스메타나의 오페라 〈리부셰〉가 초연되었고, 드보르자크의 〈투살카〉와 〈아르미다〉, 야나체크의 〈보로우체크 씨의 여행〉 같은 걸작이 이곳에서 초연되었다.



시민회관(Obecní dům)은 20세기 초 옛 왕궁 터에 지은 아르누보풍 건물로,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이 선포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 있는 스메타나 홀은 프라하, 더 나아가 체코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수많은 전설적인 연주회가 펼쳐졌다. 그중 몇몇 공연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1989년 11월 프라하에서 공산당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지휘자 바실라프 네우만과 체코 필하모닉은 스메타나 홀에서 시민을 응원하는 마티네 콘서트를 열었고, 궁전 정부 설립이 눈앞에 다가온 12월 14일에 네우만과 체코 필하모닉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해 ‘벨벳 혁명’의 성공을 기념했다. 객석에는 곧 대통령으로 취임할 바실라프 하벨도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90년 5월 12일, 헤마나 스메타나의 기일에 〈나의 조국〉으로 시작되는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 개막 연주회에는 라파엘 쿠벨리크가 서방 세계로 망명한 지 42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 지휘대에서 서서 잊을 수 없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1948년 쿠벨리크가 주도해 창설한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는 지금도 체코를 대표하는 뮤직 페스티벌로서 그 위상을 잃지 않고 있다. 올해 개막 연주회에서는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나의 조국〉을 연주했고, 조성진도 루돌프룸에서 열린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리벨과 리스트를 연주해 찬사를 받았다. 음악의 도시 프라하는 이렇게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글 이준형_음악 칼럼니스트이자 〈옛 음악 새 연주〉 저자. CPBC 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이며 CBS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글과 번역, 방송, 강연을 통해 옛 음악의 아름다운 가치를 탐구하고 소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람과 책을 잇는 건축, 도서관의 미학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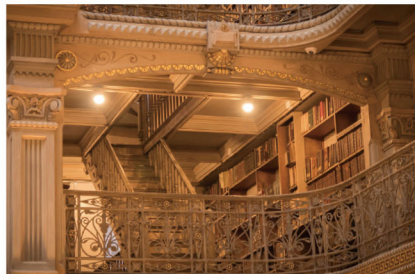
도서관은 책 읽는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경험과 영감의 공간이 된 전 세계 도서관을 돌아봤다.

조지 피보디 도서관

도서관 문을 여는 순간 19세기로 타임 슬립한 듯한 기분에 젖어든다. 1878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미국 최초의 국제 금융인자 자선가로 알려진 조지 피보디가 볼티모어 시민들에게 헌정한 곳이다. 현재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속해 있다. 조지 피보디 도서관을 언급할 때 종종 붙는 '책의 성당'이라는 수식어는 이곳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웅장한 역사를 짐작케 한다. 18.5m 높이의 화려한 기둥과 대리석 바닥, 금박 장식에서 기품이 흐르고 천장의 유리를 통해 스며드는 빛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서일까. 공간이 주는 위엄이 멋스러워 휴관일에는 결혼식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실내는 총 7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6개 층에 서가가 놓여 있다. 그중 5개 층은 발코니로 둘러싸여 고풍스러운 멋을 발산한다. 정교한 세공이 돋보이는 발코니는 언뜻 보면 석재를 깎아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철을 사용해 현존하는 도서관 중 가장 아름다운 주철 건축물로 꼽힌다.

도서관은 단순한 책 저장고를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장이기도 하다. 조지 피보디 도서관에서는 19세기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소장 도서 30만여 권 중 대부분은 18~19세기에 발간한 것이며, 종교·예술·건축·역사 등 방대한 카테고리를 아우른다. 보물찾기하듯 희귀본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1856년판 윌트 휘트먼의 <풀잎(Leaves of Grass)>, 1617년판 <돈키호테>를 보관하고 있다. 또 1492년까지 역사를 아름답게 묘사한, 일종의 세계사 그림책인 <뉘른베르크 연대기(The Nuremberg Chronicle)>도 만날 수 있다.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조지 피보디의 이념을 받들어 지금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 ① 17 E Mt Vernon Pl, Baltimore, MD 21202, United States
- ② 월~목요일 10:00~17:00, 일요일 11:00~17:00, 금·토요일 휴관



INSPIRATION





LIBRARY

베이터우 공공 도서관

나무와 종이 내용에 파묻혀 느긋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도서관이다. 베이터우 온천 서쪽 끝에 동지를 둔 이곳은 책을 읽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연과 건축물의 유기성을 강조한 도서관으로, 대만 최초로 LEED 인증(친환경 건물 인증 제도)을 받았다. 건물 전체는 목재와 강철 등 100% 재활용 가능한 자재만 사용했는데, 목재로 마감한 외관과 초록 정원으로 꾸민 지붕은 녹음 속에 이질감 없이 녹아든다. 유기적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비단 심미적 부분만 신건 쓴 게 아니다. 창 위치, 지붕 모양 등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뜯어보면 자연에 대한 깊은 배려가 느껴진다. 지붕의 안전한 경사는 흐르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설계한 것으로, 이렇게 모은 빗물은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한다. 또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최대 16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지붕 한편에 마련한 정원은 도서관 내 흡연을 줄여준다. 서함만 제외하고 동향, 남향, 북향은 커다란 창문과 문으로 마감한 것도 이유가 있다.

서함에서 비추는 뜨거운 햇살은 차단하고 남쪽 창으로는 공원을, 북쪽 창으로는 계곡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또 창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실내를 환기하고,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목재 가구로 꾸민 실내에는 공원에 풍기던 자연 내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서기는 3단으로 낮게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는데, 이는 자연광을 구석구석까지 들이고, 어느 자리에서나 바깥 경치를 눈에 담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도서관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을 꼽으려면 단연 발코니다. 벤치에 앉아 책 속 문장들과 대화를 나누다 고개를 들면 자연이 말을 걸어온다. 눈앞에 일렁이는 초록 물결, 코를 스치는 흙과 나무 내음, 것기에 음악 선율처럼 흐르는 개울물 소리. 그렇게 주변 생명과 소통하다 보면 무더진 감자들이 하나둘 깨어난다. 책과 함께 호흡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공간이 있을까.

📍 No. 251, Guangming Rd., Beitou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12

🕒 화·수·금·토요일 8:30~21:00, 일·월요일 9:00~17:00, 목요일 휴관



BEITOU PUBLIC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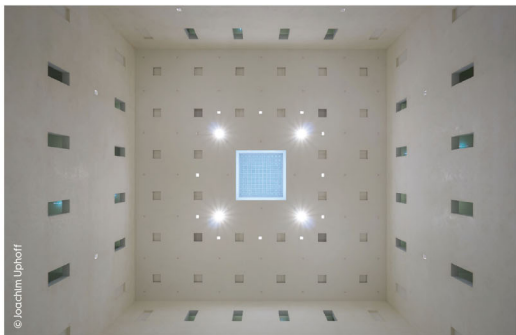
STUTTGART CITY LIBRARY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거대한 큐브가 땅에 박힌 듯한 모습으로 행인의 발길을 붙드는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반듯한 정육면체 형태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강박에 가까운 미장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외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일한 크기의 빈투명 유리 블록을 반복적으로 배치했는데, 이 유리는 낮 동안 자연광을 실내로 들이고, 밤에는 파란색 LED 조명을 비춰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오리를 뿜어내게 한다. 겉모습만 보면 주거지인지 사육인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이는 건축가가 의도한 바다.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의 설계와 인테리어를 도맡은 사람은 바로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으로, 책을 열기 전까지 내용을 모르듯 그 용도를 알 수 없도록 디자인했다고 한다. 사면 상부에 영어·독일어·아랍어·한국어로 새긴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이곳의 용도를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힌트라 할 수 있다. 내부는 순백으로 마감했다. 도서관은 책과 사람을 위한 무대에 불과하다는 건축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담백한 실내에서 오로지 책과 사람만이 제 색을 내며, 외벽을 따라 뿜뿜하게 꽃힌 책들과 각 층을 연결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계단이 현대적 미감을 보여준다.

도서관 설계 당시 슈투트가르트에서 건축가에게 요청한 건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아





성찰을 위한 공간 마련', 다른 하나는 '혁신적 멀티미디어 도서관'이다. 첫 번째 주문의 결과물은 도서관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마 시대의 판테온 신전에서 영감받아 만든 영상실로, 도서관의 '심장'이라 불린다. 4개 층을 터서 만든 순백의 텅 빈 공간에는 고풍함이 흐르고, 천장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빛이 송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혁신적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과 반납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하면, 1층 로비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안내대를 설치했다. 또 각 층마다 스캐너, 특수 소프트웨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기 등 고성능 컴퓨터를 비치했다. 도서관 동쪽 현관에는 '잠 못 드는 사람'을 위한 도서관^{library for the insomnia}이라는 공간을 마련, 24시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의 본질과 혁신'에 대한 건축가의 고민이 응집된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이 시대를 대변하는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Malländer Platz 1, 70173 Stuttgart, Germany

🕒 화요일~토요일 9:00~21:00, 일·월요일 휴관

글 이도연

도서관이라고 하면 흔히 책과 사색이 흐르는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 문을 여는 도서관을 보면 이런 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눈으로 활자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중. 의정부시에서 개관한 의정부미술도서관과 의정부음악도서관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공간 모두 '영동하는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의 구심점은 개방과 소통이다.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영감을 얻고 창의력을 발산하는 공간을 꿈꾸며 지었다. 1층에서부터 이곳의 색깔이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어느 도서관과는 사뭇 다른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나선형 계단, 원형 '빛살형'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 서가, 각각각색의 가구가 시각적 유희를 선사한다. 특히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전면 통유리창과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경치가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3개 층은 미술 서적으로 구성된 '아트 스튜디오', 일반 도서로 채운 '재너럴 그라운드', 카페·오픈 스튜디오·기존종 등을 갖춘 '멀티 그라운드'로 나뉘어 있으며, 미술 책도 도서관에 걸맞게 소장 도서의 40%에

울 전문 도서관 구성했다. 국내 신사실과 도서관부터 1만여 권의 도록, 해외 예술 원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미술 전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가 하면, '아트 테라피 미술 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을 경험하게 한다.

2021년 개관한 의정부음악도서관 역시 음악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체험형 도서관이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공연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 등 이곳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과 음악을 향유한다. 미술도서관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양질의 음악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층과 중층에는 K-팝·힙합·재즈 등 장르별 음악 전문 도서와 잡지, 악보를 구비해 두었다. 그리고 3층으로 향하면 레코드 숍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1만 장이 넘는 CD와 LP, DVD가 벽면에 가득 채워져 있으며, 원하는 음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볼 수 있다. 음반과 CD·LP 플레이어는 책처럼 대여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공연이 열리는 무대를 위한 오디오룸, 피아노 연습이나 곡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불도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

룸은 달리, 드비알레 같은 고품질 스피커와 다양한 오디오 기기를 갖춰 최적의 사운드 환경에서 영상이나 음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때로는 공연장이, 때로는 창작실과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이곳. 오감을 충족시키는 도서관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음악도서관 외관



음악도서관 1층 전경



자유로운 가구 배치와 돋보이는 미술도서관 2층



미술 서적으로 구성된 미술도서관의 1층 '아트 그라운드'

의정부미술도서관

-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 화~금요일 10:00~21:00, 토·일요일 10:00~18:00, 월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휴관

의정부음악도서관

- 📍 경기도 의정부시 정곡로 280
- 🕒 화~금요일 10:00~21:00, 토·일요일 10:00~18:00, 월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휴관

어떤 매력적인 만남

(서가^{***} 콘서트)의 큰 그림을 그린 후 디테일한 요소를

하나하나 기획하며 총괄 연출을 맡은 이선영 작가.

그리고 그 의도를 살려 (서가^{***} 콘서트 시즌 2: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입체적 해설을 들려줄 차무진 소설가.

이 두 사람에게 듣는 소설과 음악 그리고 이번 공연의 흥미로운 이야기.

'클래식과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의도로 기획했나요? ^{이선영} 고전소설과 고전음악은 풍기는 이미지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전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가진 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두 분야를 접목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오히려 긍정적 시너지가 생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서가^{***}'는 중의적 의미로 붙인 제목이에요. 모두 알고 있는 '서가^{***}'에서 책과 연관된 콘서트라는 것을 알리면서, 원래 생각했던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죠.

원작 소설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선정한 건가요? ^{이선영} 원작을 먼저 정하고, 다시 읽으며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고민했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은 후 어떤 흐름으로 콘서트를 구성할지 고민합니다.

국 선점은 구성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공부를 해야 했어요. 가장 먼저 책에 나오거나 스토리와 연관 있는 음악을 고릅니다. 그다음엔 작가가 활동하던 시대를 대변하는 곡을 찾죠. 어울리는 곡을 선정한 후 공연 연출가인 조현우 감독, 섭외한 연주자들과 공연 내용에 대해 상의하면서 더 좋은 곡이 있는지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이중 집단이 만나니 준비할 때도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책을 미리 읽고 콘서트를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선영} 읽고 오셔도 좋고, 읽지 않고 봐도 괜찮은 콘서트입니다. 책을 읽은 분들은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 거고, 읽지 않았다더라도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선물해 드리는 공연이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음악과 책을 함께 즐기는 콘서트를 만들고자 한 것이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공연 해설가로 소설가를 섭외한 이유가 있으나요?

^{이선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악하는 분과 전문 사



《호밀밭의 파수꾼》은 청춘의

방향을 잘 그린 걸작입니다.

고전소설과 클래식 음악,

정말 멋진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차무진} 소설가

회지도 염두에 두었지만, 글을 쓰는 작가가 콘서트의 또 다른 주체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사회자보다 진행 능력은 미숙할지 모르지만, 작가가 책에 대해 안내해 준다면 진정성 면에서 관객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차무진} (서가^{***} 콘서트) 두 번째 공연 사회를 제안 받았을 때 떨렸습니다. 평소에도 감연하려 가기 전에 악곡에 둘러 진정제를 꼭 사 먹는데요, 이번 (서가^{***} 콘서트) 사회를 보는 날에는 네 병 정도 들이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웃음) 글 쓰는 작가가 해설하는 연주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런 컬래버레이션 기획은 정말 멋지네요.

《호밀밭의 파수꾼》은 어떤 의미를 지닌 소설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선영} 고등학생 시절 독후감 쓰기 숙제를 하며 읽은 책이에요. 훌륭한 고전소설

이라고 들었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다 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길래 저도 다시 읽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보다는 중년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읽으니 느끼는 바가 더 많았어요. 속속에 있을 땀 낫업이 쌓인 바닥과 잔가지만 보였는데, 숲을 벗어난 전망대 위에서 보니 나무가 울창한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는 느낌이랄까.

차후진 고백하자면, 과거에 이 작품을 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연 섭의를 받고 집중해서 원독했어요. 1950년대 물질적인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욕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꽤 입체적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은 늘 충돌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자 현실을 구축한 기성세대의 부조리를 맞닥뜨리는 청년들은 어느 시대이건 방향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순수함을 지키려는 청춘의 방향을 잘 그린 걸작으로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는 작품이에요.

두 분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가요? **이선영** 그렇진 않아요. 1년에 공연 두세 번 보는 게 고작이고,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나 알아들을 정도죠. 어쩌면 클래식 음악 애호가가 아니어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클래식 공연만 보기에다 시간이 부족한데 책 이야기까지 하는 걸 용납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차후진 전 작업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듣는 편입니다. 다양한 고전음악을 들으며 삼년에 잠겨온 하죠. 모든 클래식 음악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식>이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클래식 전문가가 쓴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들었던 음악을 떠올리며 음악가들의 사연과 제 이야기를 엮어 썼습니다. 많은 분이 작가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클래식 음악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가^{書歌}> 콘서트 시즌 2: 호밀밭의 파수꾼
공연 리스트에 있는 곡들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

<서가^{書歌}> 콘서트는 책을 읽고 봐도 좋고, 읽지 않아도 읽고 싶은 마음을 선물해 드리는 공연이 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책을 같이 즐겨보세요. _ 이선영 기획 및 총괄 연출

합니다. **이선영** 존 레넌의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이 책에 얹힌 슬픈 에피소드 때문인데, 존 레넌을 저격한 범인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를 쫓다 자료를 봤어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해요. 이런 뜻밖의 에피소드로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선정한 노래입니다. 사이먼 앤드 가펄클은 이 소설에 감동을 받아 곡을 쓰고 노래하기도 했다고 해서 선정했구요.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도 있죠. 슈만 <어린이 정경 1-3-7곡>과 여자인구를 두고 롬메이트와 싸우는 상황이 그려지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속 '렌스킨의 아리아'라는 곡도 있습니다. 모두 주인공과 주인공을 둘러싼 이야기, 소설의 탄생 배경과 에피소드를 알려주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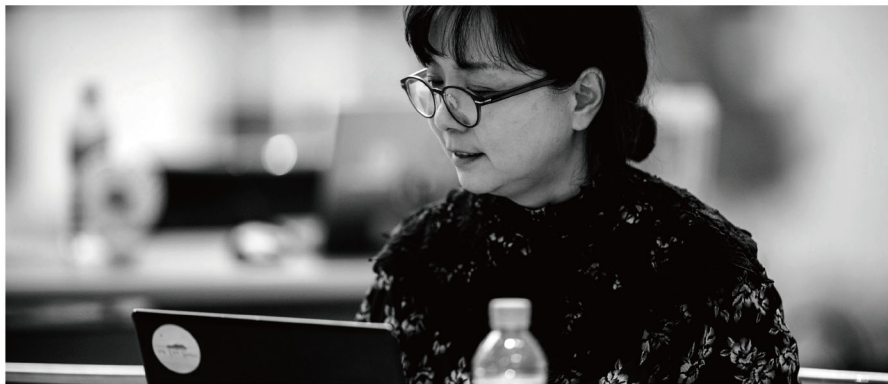
그중 이번 콘서트의 성격과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곡이 있다면요? **이선영** 슈만의 <어린이 정경 1-3-7곡>입니다. 슈만이 '어린이에게서, 어린이를 위해'라는 부제를 붙인 곡으로 아름다운 동심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어린이 시각에서 본 일상의 장면이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마치 이 소설의 주인공 홀든이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과 너무나

많은 이 소설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기를 기대하나요? **이선영**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시 읽으며 느낀 감동을 관객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 중간에 책을 덮었던 분들에게 이번 공연을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어?" 하며 놀라실 거예요. 7월 30일에 열린 <서가^{書歌}> 콘서트 시즌 1: <고리오 영감>도 예상외로 많은 분이 찾아주셨어요. 별 기대 없이 오셨던 관객들이 공연 끝나고 돌아갈 땐 "다음 공연은 언제 하지?", "책을 사서 읽어봐요?" 등 다양한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기획할 때 기대했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진 예술은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연의 감동 역시 관객들마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다만 작으나마 바라는 게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공연을 보며 느낀 감동은 평생 마음에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살면서 그때 느낌을 계속 꺼내 되새겨 볼 수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납부받지 않은 부자가 될 겁니다.

글 이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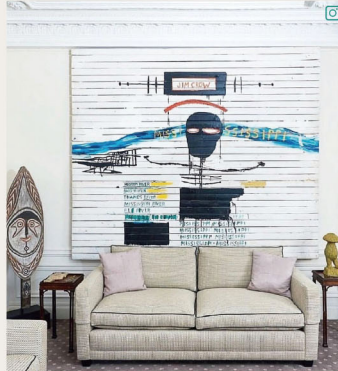


아트 컬렉터의 세계

미술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품을 눈여겨보고,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지식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신간 네 권과 감각적인 정보와 이미지가 가득한 아트 컬렉터 5인의 SNS를 소개한다.



《Great Women Sculptors: 위대한 여성 조각가들》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여성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권의 책에 압축했다. 카미유 클로델, 바버라 헵워스, 루이즈 부르주아 등 전 세계 조각가 300여 명의 주요 작품을 344페이지에 걸쳐 담았으며, 그들의 예술적 기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조각 예술의 500년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견뎌낼 것이다.
리사 로 워버트, 파미론 에드러 저 | 전주 K. 가너드 옮김 | 파미론 펴냄



Carl Larsson @theartreporter

칼 라르손은 아트 딜러로 활동 중이며, 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 '아트 리포터'도 운영하고 있다. SNS에서는 예술 시장의 최신 동향, 주요 행사 등 예술 애호가와 컬렉터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끄는 건 그의 작업물로, 자신이 직접 큐레이팅한 작품을 의뢰인의 집에 배치하는 과정 등을 기록해 오고 있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미술학자 박은순은 경제 정세에만 편향되지 않고 진경산수화의 전례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저자의 오랜 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은 진경산수화의 정의부터 주요 소재와 관점, 진경산수화 유형과 변천사 등이 담겨 있다. 더불어 윤두서, 정선, 강세황, 김득신 등 주요 작가의 작품 239점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박은순 저 | 들레게 펴냄



Karen Robinovitz @karenrobinovi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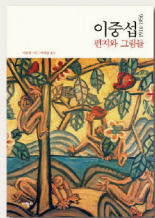
신진 작가나 여성 예술가에 큰 관심이 있다면 캐런 로빈노비츠의 계정을 유심히 보자. 뉴욕 솔라임 뮤지엄 솔루무 인스티튜트의 공동 창립자인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수집품과 전시회 방문기를 공유해 오고 있다. 계기를 3,000여 개가 거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을 만큼 직접 감상하고 경험한 작품의 스펙트럼이 상당하다. 그의 사선을 따라가다 보면 신진 작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Peter Ibsen @pibson

컬렉터 피터 이븐의 미니멀리즘 작품에 대한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계점이다. 그는 세르게이 헨센, 그레고어 힐데бран트 등 특정 예술가 몇 명의 작품을 다양하게 수집하는 편이다.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보면 그 취향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피드에는 자신이 설립한 선데이-애스 갤러리의 전경 사진이 주를 이룬다. 여느 갤러리와 달리 컬렉터의 집을 연상시키는데, 같은 공간에 매번 달라지는 작품과 그의 인테리어 미감을 엿볼 수 있는 맛이다.



《이중섭 판자와 그림들 1916-1956》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오래, 그리고 깊이 사유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단비 같은 책이다. 유화, 수채화, 스케치, 구아슈화, 은지화 등 대표 작품 90여 점과 더불어 아내 이남덕(마사코) 여사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남덕 여사가 이중섭에게 보낸 편지 등을 담았다. 김춘수 시인과 구상 시인이 생전 남긴 이중섭에 관한 글도 담겨 있어 그 시절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생생하게 회고할 수 있다. 이중섭 지음 | 박재삼 옮김 | 가더너 퍼블



Carol Server @csart430

뉴욕 브롱크스 미술관의 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캐럴 서버는 남편과 함께 영향력 있는 아트 컬렉터로 꼽힌다. 피드에는 부부의 예술적 취향대로 카라 워커, 니콜 아이젠만 같은 여성 혹은 유색인종 예술가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트라이베카 집 곳곳에 걸린 작품과 최근 구매한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이 외에도 아트 페어의 하이라이트, 눈여겨보는 작가 등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Frank Cohen @manchestermidcoi

'맨체스터의 메디치'라는 별명을 가진 프랭크 코언은 영국의 저명한 미술 컬렉터. 2013년 데어던 아트 센터라는 갤러리를 설립했다. 약 1,500점에 이르는 그의 컬렉션은 로런스 스티븐 라우리, 데이비드 볼버그, 프랭크 아우버호프 등 거장의 작품을 다수 포함한다. SNS에 주로 올리는 일상 사진 속엔 미술품과 그의 예술적 취향이 위트 넘치게 녹아들어 있다.



《〈큐레이터 송한나의 그림 사는 이야기〉 큐레이터 송한나가 아트 컬렉터 입문자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현대미술을 위한 작가 10명을 선정해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테면 유니크 워크와 에디션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액자를 맞춰야 하는지, 미술품 구입 시 왜 프로버넌스를 요구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일부러 예술계의 흐름을 고려한 투자 방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송한나 지음 | 박옥아(하우스) 펴냄

New Wave of Art

기술이 진화할수록 예술도 풍요로워진다. 지금, 현대 문화예술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바람.

기술이 클래식 음악에 가져온 풍요

올해 초, 클래식 음악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클래식 음악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뮤직 클래식'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였다. 조성진, 임요환 같은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와 협업하는 것은 물론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에서 음원을 접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 전용 스트리밍 앱 '이다지오(IDAGIO)' 유저들도 귀가 쫑긋해졌다. 나 또한 당장 가입한 후 사용해 보았다. 처음이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충분히 놀라웠고 편했다. 작곡가·연주자·곡목이 알아보기 쉽게 쓰여 있었고, 어떤 곡을 들을지 헤매기 전에 추천해 준다. 특히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한글 검색이었다. 아주 마이 나한 음반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두 번 검색으로 원하는 결과물에 닿았다. '원하는 음악이나 음반을 찾는 데 몇 초가 걸릴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자체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내 경우 음악을 듣기까지 15~2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손에 쥐는 속도보다 빠른 시간이다. 그야말로 '패스트'™ 클래식이다. 패스트 클래식은 비단 음원 스트리밍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유튜브, 디지털콘서트홀, 스테이지+에서는 고화질 영상도 금방 찾을 수 있다. 내가 듣는 것도, 연주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곡 중에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 있다. 올해부터는 '들어볼까?'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애플뮤직클래식 앱이 떠올랐다. '슈만'과 '시인의 사랑'

두 가지 키워드를 한글로 검색하니 한 작품으로 226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인기노자 발매일에 따라 분류해 100여 곡을 들은 후 가장 좋아하는 3개의 음반을 골라보았다. 감상하는 데 꽤 긴 시간이 들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세계 각국의, 나이까지 천차만별인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전하는 다채로운 음색과 번득이는 해석을 한 번에 접할 수 있었다. 새삼 이런 적이 있구나 싶다. 불과 20여 년 전 클래식 음악을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꼭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들어야 할까?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자리도 불편하고, 일시 정지와 빨리 걸기도 안 되며, 경우에 따라 컨디션 난조나 실수하는 일부 연주자도 봐야 한다. 이렇다 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음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질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은 현장에 있다. 기술 발전이 현장에서 울리는 음악의 가치까지 넘보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제 아무리 값비싼 오디오나 헤드폰도 현장에 울리는 소리를 대체할 순 없다. 무엇이 더 낫다기보다 영역 자체가 다르다. 과학적 근거를 차치하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나의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다. 나는 올해만 해도 여러 번 공연장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 훨씬 많은 시간을 애



플류지클래식컬에 참여했음에도 말이다. 클래식 음악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울리기 위해 작곡되었다. 공연장 안에서 느끼는 시각, 청각, 감정의 경험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다. 공연장에서 한 번이라도 감동을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작곡가, 연주자, 관객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행복감을

어찌 되었든 음악 듣기가 참 편해졌다. 음원 스트리밍 앱이나 영상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공연을 만끽하기 위한 예술과 복습을 하기도 참 쉬워졌다. 음악가가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경험해 본 후 현장에서 들으면 분명 더 넓고 깊게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이 너무 좋았을 때 그 감동을 이어가기도 편하다. 공연에서 접한 작곡가의 다른 작품도 들어보고, 같은 작품을 다른 연주자의 버전으로 듣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야말로 클래식 음악 애호가의 전성기다.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현장에서 울리는 음악의 가치를 더 풍요롭게 누리면 어떨까? 클래식 음악의 세계는 드넓은 숲처럼 넓고 깊다.

글 안원규, 플루티스트이자 〈하루 하나 클래식 100〉, 〈클래식 듣는 맛〉의 저자, 유튜브 채널 〈일구하 19tracher〉를 운영하고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예술의 경험



사실 예술가 디스트릭트

그해 여름, 모두가 삼성동에 파도를 보러 갔다. 2020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의 전시다. 미디어 아트라면 거장 빌 비올라나 제니 홀저의 전시만 알 정도로 작품을 염선하는 그곳에서 대중적인 미디어 아트라니, 어두운 전시장 안에서 관객을 덮치는 역동적인 파도의 이미지와 갤러리 앞에 이례적으로 늘어선 대기 줄을 보며 미디어라는 매체와 현대미술 사이에 쌓인 시간의 켜를 떠올렸다.

10여년 사이에 프로젝션 매핑이나 인터랙션 등 실감 콘텐츠 기술이 급성장하며 미디어 아트는 예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예술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편견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일본의 팀랩, 한국의 에이스트릭트나 사일로랩 등 기술적 수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영국 전시 공간 라이트룸이 서울에 문을 열어 데이비드 호크니가 직접 참여한 미디어 아트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불어 언플렉스, 파라다이스 아트랩 등 기관 및 기업에서 예술과 기술 융합 사업을 통해 현대미술 작가도 본격적으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미디어 아트가 현대미술이라는 공고한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적 인기도 한몫했다. 미디어 아트는 정적인 감상을 요구하는 기존 미술 작품과 달리 관객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직접 작품에 참여하거나 화려한 이미지 속에서 '인생샷'을 남기는 행위는 디지털 언어와 다양한 자극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즐거운 놀이다. 또 팬데믹을 거치며 안전한 실내 활동으로 전시가 주목받았다. 실제로 자연경관을 담은 미디어 작품이 일종의 대체 경험으로 관객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디어 아트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관객과 예술을 연

결하는 매력적인 고리가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미디어 아트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앞서 언급한 에이스트리크는 디스트리크라는 콘텐츠 기업의 아티스트 유닛이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작품을 상업적으로 제작해 온 디스트리크는 삼성동 K-팝 스퀘어 미디어의 '웨이브'(2020),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웨이브 넘버 투'(2021) 등을 선보였고, 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아르떼뮤지엄을 개관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계 기업 모허건이 인천에 문을 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포트는 국내 최대 미디어 아트 전시관 르스페이스를 통해 우주여행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것을 모두 예술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아직의 문이다. 그러나 예술성 부족이라는 편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적 갤러리 페이스의 전속 아티스트인 팀랩은 복제 가능한 미디어 아트에 예술 작품의 원본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품 하나를 동시에 여러 곳에 전시하지 않는다. 최근 페이스 서울에서 개최한 개인전과 DDP의 대규모 전시를 관통하며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라는 철학을 보여주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거대한 기계장치 작품을 선보인 최우람, 기업과의 협업으로 로봇 특허를 출원한 아이브이아이에이아이유 시티[VAALU City 등] 자본의 후원과 기술의 변화를 적절히 활용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 스튜디오를 구성해 함께 움직이는 작가도 늘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 도입, 작품을 통한 상호작용 경험 모두 이제 시작이다. 전시장을 나서면

증발되는 위로와 즐거움 그리고 주체적 사고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얻는 경험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미래 관객의 몫이다. 문화 전문 기자 문소영은 저서 《혼종의 나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국내 문화의 특성을 '혼종'이라 정의했다. 서로 겹쳐진 곳에서 의외의 예술적 경험이 솟아날지도 모른다. 물론 그중 산업이나 놀이로 분류되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선불리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경계를 지키려 애쓰기보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새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가능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다.

글 김지연, 미술비평가, 비평지 <크리티크 M> 편집위원이며, 동시대 미술과 대중을 잇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저술과 강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에 당선되었다. <등을 쓰다듬는 사람>, <미러의 눈> 등의 저자다.



Zoomin
무대 뒤커뮤니케이터
연극 <매달린 집>의 오기택 조연출은
무대 뒤 숨은 조력자다

GGAC STORY

GGACNews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뉴스

Calendar
8월과 9월의 공연 일정

Epilogue
치열한 고독 뒤의 화염

무대 뒤 커뮤니케이터

하나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사하고도
복잡한 일들을 분주히 챙기며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조력자,
경기도극단의 오기택 조연출과 만났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경기도극단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 오기택입니다. 현재 연극 〈매달린 집〉 조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연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간의 이력이 궁금합니다. 원래 연기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 자연스럽게 연극을 시작했구요. 7년 전 처음 들어간 극단에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몇몇 젊은 사람끼리 뜻을 모아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이때 연기가 아닌 제작 파트에 몸담으면서 기획·홍보 등을 혼자 다 했지만, 경험적 적었던 터라 힘들고 빨리 고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연극 제작의 작은 부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우연히 조연출을 맡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연출가마다 원하는 부분이 달라요. 많은 일을 연출가가 다 하기도 하고, 전부 조연출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극 연습 들어가기 전에 연출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조연출은 배우에게 직접 디렉팅하기보다는 연출가와 의견을

연출가는 물론,
연극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으며 호흡을 잘 맞춰야 해요. 연출가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포착해 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죠. 연출가의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눈치껏’ 잘해야 합니다.(웃음) 국내에서는 조연출을 연출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곤 하는데, 해외에선 좀 더 세부적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조연출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연극계에도 전문 조연출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연출 역할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연출가와 배우, 무대·조명·음악 감독, PD 등 연극 한 편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일을 더블 체크한 후 연출가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감독님들에게 필요한 소품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연습실 방문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직전까지 복잡다단한 일들을 하나하나 계속 체크해야 하죠. 모두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연출은 중간에서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한 걸음 뒤에서 전체와 주변을 두루 살피는 일이 제 성격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공연을 앞둔 연극 〈매달린 집〉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희곡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박주영 상임연출과 전영지 드라마티크가 윤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러워지면서 관객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화한 것 같아요. 아직 리딩 연습 단계지만 공연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큼니다.

경기도극단의 강점과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경기도극단 배우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계신 분が多い요. 입단 6개월 차인 저보다 더 노련하고 유대감도 끈끈하죠. 외부 배우를 캐스팅하는 프로덕션 방식과 달리 소통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연극은 공동 작업이다 보니 단합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밀감이 무대에서도 잘 드러나고,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정말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연극 작업은 항상 즐겁지만, 극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가 끝나면 또 새로운 것을 찾고 부딪혀야 하는 불안정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공연 라인업에 따라 여러 편의 희곡과 만나게 되는데, 그 희곡들과 빨리 친숙해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다시 연기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제작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글 이정주 사진 박우진



(매달린 집) 대본 리딩 연습 중인 연출가와 배우들, 그리고 오기택 조연출.





경기도무용단의 소방 훈련 모습

2024년 경기아트센터 합동 소방 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

지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대극장 1층 로비와 도음관 아카데미실, 야외 광장 등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경기아트센터터를 찾는 고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함이다. 사무 직원은 물론 각 예술 단체의 단원까지 모두 참여한 이번 훈련은 화재 진화 소화기·소화전 사용 실습, 위기 상황 절차에 따른 내방객·관객 대피 유도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정지 환자 응급 처치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 지진, 붕괴, 가스 폭발 등 재난 대비 및 안전 훈련도 병행했다. 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숙지하기 위해 극장 종사자 모두가 교육과 실습 훈련에 참여했다.

재단법인 출범 20주년 기념식 & 비전 선포식 개최

5월 3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재단법인 출범 20주년 기념식 & 비전 선포식에는 경기아트센터 임직원과 단원 등 내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 기관장, 외부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비전 선포를 응원했다. 서춘기 사장은 선포식을 통해 "경기도의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알리고 경기아트센터의 지향점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낭독했으며, 전임 예술감독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뿐 아니라 재단법인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산록 예술감독을 포함한 단원들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법인 출범 20주년 기념 식수.

GGAC NEWS

이달의 경기아트센터 소식을 소개한다.



경기아트센터 기회소극 예술인 상설 무대

7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경기아트센터 내 야외 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단 8월 3일과 10월, 9월 14일은 공연이 없으며 16회 무료로 펼쳐진다. 출연진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회소극 예술인으로,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과 경기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8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는 '한여름 밤의 예술 무대'로 운영해 무더위에 지친 도민에게 일상 속 문화를 누리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031-230-3332

2024 경기 청년 예술 기회 오디션

'경기 청년 예술 기회 오디션'은 예술계 진입과 프로 무대에서 능부신 활약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와 예술인의 존재 의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기아트센터에서 시작된 아티스트를 위한 무대다. 예술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진 청년 예술인에게는 경험 축적의 기회를, 무대 경험이 많지만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인에게는 화려한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경기도 대표 사업이다. 분야별 청년 예술인 산발, 예술감독의 연수 지도와 멘토링, 프로젝트 작품 연습, 성과 발표(프로젝트 공연)로 이어진다. 7월 말에는 음악 분야한국음악, 서양음악에 참여하는 청년을 선발하는 전형을 진행했으며, 추후 무용·연극 분야 공모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공연 일정은 음악 분야는 9월 20~29일 열흘간, 무용과 연극은 12월 초순과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KOREA PIANO FESTIVAL

24.10.1.-10.6.

티켓. 홈페이지 확인 관람. 7세 이상 관람가 예매.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 1544-2344 문의. 031-230-3264 주최. 주관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0.2.Wed.19:30

오프닝콘서트 : 피아노 오케스트라

10.3.Thu.16:00

선율 리사이틀

10.5.Sat.19:00

협주곡의 밤

10.6.Sun.17:00

알렉산드르 캄토로프 리사이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0.1.Tue.19:30

해설이 있는 클래식

10.3.Thu.19:30

The Cinematic Piano

10.4.Fri.19:30

The Masterpieces : Jazz Variation

10.5.Sat 14:00

Stage for you

아외극장

10.2.Wed-4.Fri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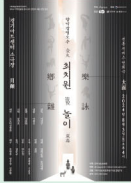
피아노 산책

ALL THAT PIANO

AUG

SEP

CALENDAR

S	M	T	W	T	F	S
				1	2	3
						〈향약잡영오수 (향藥雜影五首)〉 - 수원 최차원(늘이)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Sat 10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국악 안현국
(천하태평 지구를 지켜라!) - 용인
13:00,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용인)

[제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전통 델미인형 만들기
(천하태평 인형을 만들어라!)
- 용인 / 11:00, 14:30
경기국악원 1강습실



뮤지컬
(누가 내 마리에
통 했어?)
11:00, 14:00,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PITTA
강형호 콘서트:
New Normal Life〉
-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S	M	T
1	2	3
뮤지컬 〈달 사베트〉 - 수원 11:00, 14:00,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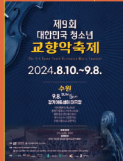
8

9

10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1 Sun

뮤지컬
(누가 내 마리에
통 했어?)
11:00, 14:00,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3

〈PITTA
강형호 콘서트:
New Normal Life〉
-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15

뮤지컬 〈영웅〉
15주년 기념 공연
- 수원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7 Sat

2024 〈Classic of My Playlist: 제철의 음악임〉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4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뮤지컬 〈영웅〉 15주년 기념 공연 - 수원
14:00, 19:00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6

17

18

뮤지컬 〈영웅〉
15주년 기념 공연
- 수원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9



20

21

〈서가 콘서트 시즌 2
호밀밭의 파수꾼〉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4 Sat

가족 뮤지컬 〈에그박사 - 연구소에서
생긴 일〉 - 수원 /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토요상설공연-문화유산을 춤추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4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22

23

24

뮤지컬
(별트카봇 시즌 8
미래연구소
지켜라!) - 수원
11:00,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5

가족 뮤지컬
(에그박사
- 연구소에서
생긴 일) - 수원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6

27

28

29



31 Sat

뮤지컬 〈달 사베트〉
- 수원
11:00, 14:00,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4 기희소독
예술인 상설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9

30

〈지브리 & 디즈니
영화음악 FESTA〉
- 수원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만남〉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풍성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 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각!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M.POST.NAVER.COM/GGARTS

지면과 SNS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글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W

4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T

5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F

6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4 기회소속
예술인 상설 무대 /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2024 김범수 콘서트
(여름, The Original)
~ 수월 /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S

7

경기도극단 연극
(매달린 집)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1

12

13

〈사가 콘서트 시즌 3
위대한 개츠비〉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4

18

19

20



유지림 〈헬로카봇 시즌 8:
미래연구소를 지켜라!〉
~ 수월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4 기회소속
예술인 상설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21

25

26

27



2024 기회소속
예술인 상설 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마크 콘서트〉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8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 상시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 공연 031-230-3261~3267, 3270~3271 / 경기도극단 031-230-3302~4
- 경기도무용단 031-230-3311~4 /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031-289-6471~4
- 경기발하모닉오케스트라 031-230-3321-5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치열한 고독함뒤의 희열

•

지구 반대편에 자리하는 광활한 자연은 조금은 공포스럽기도 하고 경외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 대상이다.

적막감마저 감도는 외딴 숲속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등하며 관계를 맺고 있을까.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낯선 장소, 완벽한 타인들의 이야기가 이 대본 한 권에 응축돼 있다.

가벼운 스프링 노트 안찰자들이 배우의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을 입고 무대 위에서 입체적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제 연습은 끝났고, 막이 오를 일만 남았다.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최열은

어떤 감정일지 자못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경기아트센터 아트플러스

회원제 사전모집

내 삶에 예술을 더하다, **ART PLUS**

문화의 새로운 차원, 아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회원 모집

- 가입대상 경기아트센터를 사랑하는 누구나
- 모집기간 2024.06.01 ~ 2024.09.30
- 혜택내용 공연 초대권 제공(연 4매)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단 QR코드 스캔)
- 혜택기간 2024.10.01 ~ 2025.09.30(1년)
- 가입비용 5만 원(기존 10만 원, 50% 할인 혜택)

* 자세한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경기도
GYEONGGI-DO